

광주·전남 외국인 5만명 시대

총 5만3901명... 국적취득자는 4255명

외국인 국적·유형·실태

광주·전남 외국인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섰다. 올 1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주민은 각각 1만 8824명, 3만5077명 등 5만390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5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엇비슷하다.

그만큼 광주시내를 비롯, 영암·목포·여수 등 전남도내 어디서나 중국 및 동남아 사람들을 접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다. 상당수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뒤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지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중추적인 산업인력으로 성장하는 등 성과 못지 않게 피부색·인종·문화 차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외국인, 외국인들 사이에 갈등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외국인 현황=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외국인 주민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외국인은 모두 5만3901명.

광주의 경우 1만8824명으로 지난해(1만6632명)에 견줘 13.2%(2192명) 늘었고 전남은 3만5077명으로 전년도(3만1305명)보다 12%(3772명) 증가한 숫자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 비하면 각각

산업 인력 31.2%·조선족 25.8% 차지 영암 인구대비 8.3%... 지자체 중 네번째

1.3%(광주), 1.8%(전남)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 2만 551명이던 외국인 주민은 2009년 2만 9832명으로 45%가 증가했고 2010년 3만1305명으로 5% 늘어난 뒤 올해 1월 3만5077명으로 또다시 12%가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전남의 외국인 체류자(90일 이상) 증가율이 지난 2005년에 견줘 무려 174.5%에 이르러 제주,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중 한국 국적 취득자가 4255명(광주 1423명·전남 2832명),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미취득자 3만6479명(광주 1만 3998명·전남 2만2481명),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3167명(광주 3403명·전남 9764명)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광주·전남의 한국 국적 미취득자 3만6479명의 국적은 ▲중국이 9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6875명 ▲중국동포(조

선족) 6190명 ▲필리핀 2141명 ▲남부아시아 1694명 ▲미국 1402명 ▲캄보디아 1322명 순이었다.

시·군·구 별로 보면 광주의 광산구(8437명), 전남에서는 영암(5004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영암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8.3%로,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 영등포구(12.4%), 금천구(10.1%), 구로구(8.8%)에 이어 네 번째로 외국인 비율이 높았다.

◇영암·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집중=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31.2%인 1만6823명(광주 6021명·전남 1만802명)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중국동포(조선족)가 25.8%인 4346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28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거주지는 광주의 경우 광산구(4204명), 전남에서는 영암(2964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외국인 근로자의 61.7%(1829명)가 중국동포(조선족·1101명)와 베트남

(728명)이다.

이어 국제결혼 가정 자녀 1만3167명(광주 3403명·전남 9764명), 국제결혼 이주자 9517명(광주 2860명·전남 6657명), 유학생 5738명(광주 3230명·전남 2508명) 등이다.

외국인 상당수가 비전문 인력에 집중됐다는 점에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를 들여다보면 전남의 등록 외국인(2만3179명) 중 제조·건설·농축산·냉장냉동 직종을 포함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부문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6418명(27.7%)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사유학(1330명), 국어연수(537명), 회화강사(470명), 외국기업 국내지사나 외국투자기업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등 고급 인력(134명)은 많지 않았다.

광주도 비슷해 광산구의 경우 등록 외국인(6929명) 중 비전문취업 부문 체류 외국인이 3092명(44.6%)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고급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베트남·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3일 밤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에서 조성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김성용(51)목포 성신고 교사에 한글을 배우고 있다. /김지을기자 jeans@kwangju.co.kr

숫자로 본 외국인 실태

53901  
36479  
16823  
13167  
8437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 1월 기준 광주·전남 외국인 수.  
외국인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국 국적이 9373명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로, 전체 외국인의 31.2%를 차지한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수.  
광산구 거주 외국인 수. 전남에서는 영암(5004명)이 가장 많다.

5738  
4255  
3774  
12  
8.3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  
광주·전남 외국인 중 한국 국적 취득자.  
전남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생 수.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남지역 외국인 증가 비율.(%)  
영암군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5004명) 비율.(%)

산업 현장 지탱하는 한 축

대불산단 전체 노동자의 75% 차지

목포고용센터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 관할 9개 시·군의 91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7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7월(861개 사업장 3170명)에 견줘 무려 599명(18.9%)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영암(2605명)이 지난해(2039명)보다 566명 늘어나 가장

많았고 해남(281명), 무안(225명), 완도(187명), 목포(156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도 산단 내 가동중인 296개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유례를 찾

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이 꺼리는 3D 업종 등 지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불산단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적응·일탈 사회문제

범죄 갈수록 급증, 다문화 사회 걸림돌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폭력 성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국민 사이에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는 679건으로 2009년 577건보다 15%(102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9만5441건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가 191건(2009년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169건(“ 110건) ▲절도 49건(“ 38건) ▲강도 4건(“ 0건) ▲강간 4건(“ 1건) ▲살인 1건(“ 0건) 등이다.

외국인 범죄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무엇보다 국내에 체류하

거나 여행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경기로 직장에서 쫓겨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신고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게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속을 통한 추방보다는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같은 문화권끼리 모임이 늘면서 갈등 요소가 생기는 것도 범죄 증가의 이유 중 한 가지다.

최근 영암에서는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들의 말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폭력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형성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폭력조직을 구성한 뒤 자국민 보호 등을 명목으로 세력화·조직화해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concert by Yoon, Hyo-gan. Features a photo of the performer playing a piano and an accordion. Text includes 'Yoon, Hyo-gan concert', '윤효간 : 작·편곡가 겸 Pianist, Accordionist',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 concert being a gift of music and stories to 1,000 performances.

Cartoon titled '빛의 만평' (Light's Cartoons) by Kim Jong-du. It depicts a character holding a sign that says '주민투표 미달지역 불이익 주겠다' (I will give disadvantages to areas where resident referendum participation is insufficient). Another sign says '투표율 33.3%' (Voting rate 33.3%).